



PORSCHE



2019 제네바 모터쇼 포르쉐 프레스킷

프레스킷

목차

포르쉐 2019 제네바 모터쇼 참가

포르쉐, 제네바 모터쇼 에서 신형 911 카브리올레, 718 T, 마칸S 공개	3
신형 911 카브리올레 - 오픈 탑 시즌에 걸맞는 완벽한 모델	5
신형 718 T - 경량화 통해 극대화된 드라이빙의 즐거움	8
신형 마칸 S - 완전한 연결성과 새로운 디자인 및 첨단 장비	10

911 카레라 S 카브리올레 : 복합 연비 9.1 l/100 km; 복합 CO₂ 배출량 208 g/km

911 카레라 4S 카브리올레: 복합 연비9.0 l/100 km; 복합 CO₂ 배출량 207 g/km

718 박스터 T: 복합 연비 7.9-8.2 l/100 km; 복합 CO₂ 배출량 181-187 g/km

718 카이맨 T: 복합 연비 7.9-8.1 l/100 km; 복합 CO₂ 배출량 180-186 g/km;

마칸: 복합 연비 8.1 l/100 km; 복합 CO₂ 배출량 185 g/km

마칸 S: 복합 연비 8.9 l/100 km; 복합 CO₂ 배출량 204 g/km

연비와 CO₂ 배출량은 새로운 측정 방식인 WLTP에 따라 측정되었다. 당분간 새로운 방식으로 산출한 NEDC 값이 명시된다. 이 수치는 기존 NEDC 방식으로 측정된 수치와 비교할 수 없다.

신형 승용차의 공식 연비 및 구체적인 공식 CO₂ 배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형 승용차의 연비, CO₂ 배출 및 전력 소비에 관한 안내 자료"를 참조한다. 이 안내 자료는 모든 판매처와 DAT(Deutsche Automobil Treuhand)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포르쉐 2019 제네바 모터쇼 참가

포르쉐, 제네바 모터쇼 에서 신형 911 카브리올레, 718 T, 마칸S 공개

포르쉐 AG(Dr. Ing. h.c. F. Porsche AG)는 4개월 전 LA오토쇼에서 더 강력하고, 빠르며, 완전히 디지털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한 타임리스(Timeless) 스포츠카 8세대 신형 911을 공개했다. 이번 89회 제네바 모터쇼에서는 봄 시즌에 완벽히 부합하는 신형 911 카브리올레를 공개한다. 포르쉐는 오픈 탑 스포츠카 911 카브리올레를 포함한 자사 아이코닉 모델 911을 더 다이내믹하고, 효율적이며, 진화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끊임 없이 노력해왔다.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450마력(PS)을 발휘하는 S 모델은 최고 속도가 300km/h를 넘고,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4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 운전자는 새로운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포르쉐 웨트 모드(Porsche Wet Mode)를 통해 젖은 노면에서도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911 모델의 클래식한 인테리어 및 외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신형 911 카브리올레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포르쉐의 오픈 탑 스포츠카 중 가장 최신 모델이다. 이 같은 오픈 탑 차체 디자인은 30년 전 처음 등장했으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911만의 독특하고 강렬한 주행 경험을 상징한다. 소프트 탑 무게는 최적화되었고, 새로운 유압 장치 덕분에 완전히 개방하는데 단 12초면 충분하다. 소프트 탑은 최대 50km/h까지의 속도에서 개폐 가능하며, 완전 자동화된 소프트 탑은 후면창과 통합된 통합 글래스 형태로, 마그네슘 표면 요소가 포함되어 고속에서도 루프가 팽창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제네바 모터쇼의 두 번째 프리미어 모델은 718 T다. 신형 투어링 버전의 박스터와 카이맨은 4기통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300마력(PS)를 발휘하며, 20mm 낮아진 차체와 함께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및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기능과 같은 최신 다이내믹 요소들로 구성된다. 또한, 2.0리터 박서 엔진을 처음으로 탑재한 718 T는 포르쉐 액티브 드라이브 트레인 마운트(PADM)과 기계식 리어 디퍼렌셜 록이 장착된 포르쉐 토크 벡터링(PTV)까지 다양한 퍼포먼스 구성 요소들을 기본 사양으로 포함한다. 2인승 고성능 스포츠카의 특성인 초현대식 다이내믹 컴포넌트를 결합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포르쉐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한다. 1968년 911 T와 1987년의 911 카레라 클럽스포츠의 전통을 따르는 718 T는 구불구불한 도로에서도 극대화된 주行的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형 마칸 S 가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 포르쉐는 디자인, 편의성, 연결성, 주행 역동성 등 모든 면에서 마칸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차량 후면의 3차원 LED 라이트 패널에는 포르쉐 고유의 디자인 DNA가 반영되었으며, 새롭게 디자인된 헤드라이트에도 LED 기술이 적용되었다. 새로운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의 10.9인치 터치스크린과 새롭게 디자인된 송풍구 및 911 모델을 연상시키는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가장 눈에 띄는 인테리어 변화 요소다. PCM으로 지능형 음성 제어 및 기본 사양의 온라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트래픽 잼 어시스트, 이오나이저, 열선 내장 윈드 스크린 등 편의 사양이 확장되었다. 신형 마칸 S는 센트럴 터보 레이아웃의 트윈 스크롤 터보 차저와 3.0리터 6기통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354마력(PS), 최대 토크 49kg.m을 발휘한다. 7단 PDK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사륜 구동 PTM은 새로운 엔진에 최적화되었다.

포르쉐 스위스 시장: 강력한 성능 선호

포르쉐는 70년 전 1949년 자동차 제조 기업 브랜드로서 제네바 모터쇼 처음 참석했다. 지난해, 로크르즈(Rotkreuz)에 본사를 둔 포르쉐 슈바이츠 AG(Schweiz AG)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3,350대의 차량을 인도했지만, 여전히 고성능 모델의 수요가 높다. 브랜드 아이코닉 스포츠카 911은 10% 이상 증가한 962대가 판매되었으며, 이 중 911 터보와 터보 S, GT 모델이 56%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4년 출시 이후 총 7,035대 판매한 포르쉐 마칸은 지난해에도 1,068대 판매하며 가장 인기가 높았다.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된 그란 투리스모의 경우, 2018년 인도된 전체 파나메라의 59%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으며, 이 중 최상위 모델 파나메라 터보 S E-하이브리드가 20%를 차지했다.

신형 911 카브리올레 - 오픈 탑 시즌에 걸맞는 완벽한 모델

포르쉐는 지난 1981년 9월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IAA)에서 최초의 911 카브리올레 프로토타입을 공개해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킨 바 있다. 최초의 오픈 탑 911 카브리올레는 1982년 처음 생산되며, 라인업에 계속해서 포함되어 왔다. 아이코닉 스포츠카의 오픈 탑 모델은 쿠페의 모든 혁신 요소는 물론, 새로운 유압 장치로 지붕 개폐가 더욱 빨라지는 등 카브리올레만의 진보된 기능까지 모두 갖췄다.

신형 911 카브리올레는 포르쉐 특유의 카브리올레 디자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쿠페의 현대적 라인을 반영하고 있다. 완전 자동화된 소프트 탑은 후면 창과 통합된 통합 글래스 형태로, 마그네슘 표면 요소가 포함되어 고속에서도 루프가 팽창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소프트 탑은 최대 50km/h의 속도에서 개폐 가능하며, 새로운 유압 장치 덕분에 개방 시간이 12초로 단축되었다. 전자식으로 확장 가능한 윈드 디플렉터는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한다.

두 모델 모두 6기통 터보 박서 엔진(2,981cm³)을 탑재한 신형 911 카브리올레는 6,500rpm에서 최고 출력 450마력(PS), 2,300-5,000rpm 사이에서 최대 토크 54.1kg·m를 발휘한다. 향상된 연료분사 프로세스로 구동 효율성과 배기 가스 배출량이 개선됐다. 터보차저 및 인터 쿨러 냉각 시스템도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최적화되었으며, 새롭게 개발된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PDK)가 탑재되었다. 911 카레라 S는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는 가속하는데 3.9초(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장착 시 3.7초), 911 카레라 4S는 3.8초(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장착 시 3.6초)가 소요된다. 최고 속도는 S와 4S 모델 각각 306km/h, 304km/h에 달한다.

또한, 엔진 마운트의 위치가 새롭게 변경되어 이전 모델 대비 비틀림 강성이 훨씬 더 견고해졌다. 911 카브리올레에는 최초로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 스포츠 새시가 적용되었으며, 짧고 단단한 스프링, 더 견고해진 전·후면 안티 롤 바, 10mm 낮아진 새시는 정교한 무게 배분과 함께 중립성을 더욱 강화시켜준다.

초기 911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반영한 외관

신형 911 카브리올레의 외관은 이전 모델보다 더 넓어졌으며 보다 확고하고 강인한 모습이 돋보인다. 20인치 프론트 휠과 21인치의 리어 휠로 더 넓어진 휠 아치가 인상적이며, 44mm 늘어난 리어 엔드로 이제 후륜 구동 모델도 사륜 구동 911과 동일한 너비를 갖게 되었다. 차량 전면의 45mm 더 넓어진 차체 폭과 앞으로 확장된 보닛 등의 요소로 더욱 다이내믹한 모습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초기 911의 전통적인 특징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차량 후면은 훨씬 더 넓어진 폭과 가변 리어 스포일러, 매끄럽고 우아한 라이트 라인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소프트 탑과, 프론트 및 리어 엔드를 제외한 모든 외관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된다

명료한 라인으로 새로워진 인테리어

완전히 새로워진 인테리어는 오목한 계기판과 직선 라인이 강조된 대시보드가 특징이다. 오리지널 911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대시보드는 두 개 워그 사이의 전체 너비를 완전히 덮고 있다. 중앙에 위치한 타코미터와 함께 두 개의 얇고, 프레임이 없는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10.9인치의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 센터 스크린은 운전 방해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작동된다.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정교한 보조 시스템

신형 911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웻(Wet) 모드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다. 웻 모드는 노면 위 물을 감지, 제어 시스템을 사전 설정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스티어링 휠(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의 모드 스위치를 통해 활성화시켜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카메라 기반의 경고 및 브레이크 지원 시스템은 차량,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와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비상 제동을 시작한다. 후방 카메라를 장착한 파크 어시스트 시스템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며,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나이트 비전 어시스트와 자동 거리 제어 시스템 및 스탑 앤 고(stop-and-go) 기능, 리버시블 탑승자 보호 기능을 포함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다.

신형 911 카레라 S 카브리올레와 911 카레라 4S 카브리올레의 부가세 및 국가별 특별 사양을 포함한 독일 시장 판매 가격은 각각 134,405유로, 142,259유로부터 시작한다.

신형 718 T – 경량화 통해 극대화된 드라이빙의 즐거움

신형 718 T는 1968년 포르쉐 911 T의 순수 디자인을 계승한 모델이다. 300마력(PS)의 4기통 수평대향 터보엔진을 장착한 신형 박스터와 카이맨은 포르쉐만의 감성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20인치 알로이 휠과 20mm까지 낮아진 PASM 스포츠 새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패키지로 고성능 스포츠카의 면모를 드러낸다. T 모델 최초로 2.0리터 터보 차저 엔진이 장착되며, 선명한 레드 컬러의 기어 넘버와 짧아진 기어 스틱 그리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기본 사양으로 제공한다. 또한, 6단 변속기와 함께 기계식 리어 액슬 디퍼렌셜 록이 포함된 포르쉐 토크 벡터링(PTV)을 기본 사양으로 제공하며, 포르쉐 듀얼 클러치 변속기(PDK)는 옵션 선택 가능하다.

포르쉐 모델에서 "T"는 투어링을 상징하며, 순수한 주행의 즐거움을 의미한다. 718 T는 구불구불한 도로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주행을 가능하게 하며 극대화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718 T는 다양한 특징을 통해 이러한 철학을 반영한다. 도어 패널에 위치한 블랙 컬러의 개방형 루프와 2개 방향으로 조절 가능한 블랙 스포츠-텍스 시트, 헤드레스트 중앙에 수 놓인 "718" 로고가 바로 차별점이다.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 모듈은 센터 콘솔에 위치한 더 넓은 스토리지 컴파트먼트로 대체되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추가 비용 없이 주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솔린 미립자 필터(GPF) 설치로 인한 추가 중량을 보완한다.

718T의 내부는 스포티한 터치가 강조되어있다. 고급스러운 패딩 가죽으로 테두리를 두른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직경이 360mm으로 손쉽게 조작 가능하며,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기어와 변속기도 뛰어난 그립감을 선사한다. 화이트 컬러의 "박스터 T", "카이맨 T" 로고가 각 차량의 블랙 컬러 계기판 다이얼을 장식한다. 계기판 패널과 센터 콘솔은 빛나는 블랙 광택 트림으로 마감되었으며, "박스터 T"와 "카이맨 T" 로고가 도어 엔트리 스트립에도 나타난다.

포르쉐 718 T는 정지 상태에서도 강력한 성능이 느껴진다. 20mm 낮아진 PASM 스포츠 새시와 결합된 고풍택 티타늄 그레이 컬러의 20인치 알로이 휠은 도로에 낮게 웅크리고 있는 인상을 주고, 빠르게 주행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느낌을 자아낸다. 아게이트 그레

이 컬러의 사이드 미러와 차량 옆면의 "718 박스터 T", "718 카이맨 T" 로고는 차별적인 디자인을 완성하고, 크롬 및 블랙 컬러 마감의 트윈 테일파이프가 중앙에 위치한 스포츠 배기 시스템은 후면 디자인을 부각시킨다. 외장 컬러는 블랙, 인디언 레드, 레이싱 옐로우, 화이트를 포함해 카라라 화이트, 딥 블랙 그리고 GT 실버 메탈릭, 라바 오렌지, 마이애미 블루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쿱먼트를 장착하면, 기본 사양 모델과 비교해 5~10%의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18 T는 7,000rpm에서 최고출력 300 마력(PS), 2,150rpm에서 최대 토크 38.75kg·m을 발휘한다. 공차 중량은 1,350kg(PDK 장착 시 1,380kg)이며, 중량 대비 마력은 4.5kg/마력(PDK 장착 시 4.6kg/마력)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5.1초(PDK 장착 시 4.7초)가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275km/h에 이른다.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기본 탑재한 718 T는 스티어링 휠의 모드 스위치를 통해 '노멀(Normal)', '스포츠(Sport)', '스포츠 플러스(Sport Plus)' 주행 모드뿐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모드도 선택 가능하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수동 변속기의 저단 변속 시 자동 듀얼 클러치 기능을 통해 엔진 관리 시스템과 가속 페달을 더욱 스포티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또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포르쉐 액티브 스태빌리티 매니지먼트(PASM)와 포르쉐 액티브 드라이브 트레인 마운트(PADM) 및 옵션 사양의 포르쉐 듀얼 클러치(PDK)로 핸들링이 더욱 강화되었다. 모드 중앙에 위치한 런치 컨트롤 기능과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은 PDK장착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718 T의 PADM 시스템인 다이내믹 기어박스 마운트 역시 차별점이다. 다이내믹 기어박스 마운트는 엔진/기어박스의 진동을 최소화시키고, 구동장치의 무게로 인해 역동적인 주행에 영향을 끼치는 움직임 감소시킨다. 하드 앤 소프트 기어박스 마운트의 이점을 결합해, 고속 커브 등 부하가 높은 상황에서도 더욱 정밀하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718 카이맨 T와 718 박스터 T의 독일 시장 판매 가격은 부가세 및 국가 별 특별 사양을 포함해 각각 63,047 유로, 65,070 유로부터 시작한다. 두 모델은 EU 28개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독일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 가능하다.

신형 마칸 S - 완전한 연결성과 새로운 디자인 및 첨단 장비

새로운 새시로 더욱 개선된 밸런스를 가진 '신형 마칸'은 기존의 차량 다이내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편안함과 드라이빙의 즐거움이 더욱 향상되었다. SUV 세그먼트에서는 이례적으로 프론트 액슬과 리어 액슬에 서로 다른 혼합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포르쉐 스포츠카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지능형 사륜구동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PTM)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더욱 역동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새롭게 개발된 타이어는 개선된 성능으로 주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포르쉐만의 차별적 브랜드 스타일 반영한 LED 테일 라이트 패널

신형 마칸의 리어 엔드는 기존 모델의 매끈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다. 포르쉐 디자인 특유의 3차원 LED 라이트 패널이 반영되었으며, 새로운 LED 라이트 패널은 두 개의 테일 라이트 클러스터를 서로 연결하고 있다. 라이트 패널 표면에는 "PORSCHE" 레터링이 3차원으로 각인되어 있다. 테일 라이트의 윤곽은 차량을 시각적으로 길어 보이게 하며, 전고보다는 차량의 전폭을 더욱 강조한다. 시각적으로 무게 중심이 낮아진 디자인으로 신형 마칸의 향상된 드라이빙 다이내믹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 밖에도 4 포인트 브레이크등은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배기 시스템의 테일 파이프는 차량 후면 아래 위치하며, 동그란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더욱 역동적인 디자인을 완성한다.

새로운 PCM이 적용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폭넓은 첨단 옵션

신형 마칸은 새로운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PCM)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포르쉐 월드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기존 7.2인치였던 풀HD 터치 스크린은 10.9인치로 확대되었다. 파나메라 및 카이엔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개별 맞춤화가 가능하며, 기본 사양으로 장착되는 이 새로운 시스템은 온라인 내비게이션과 포르쉐 커넥트 플러스가 포함된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교통 데이터를 제공하는 최첨단 "히어 클라우드(Here Cloud)" 커넥션으로, 상시 최신 온라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주행 경로를 신속하게 계산해준다. 또한, FM/DAB/온라인 소스를 자동으로 전화해주는 웹 라디오, 지능형 보이스 파일럿, 안전 및 응급 서비스 같은 원격 조정 기능도 추가되었다. 포르쉐 커넥트 앱과 포르쉐 카 커넥트 앱을 사용하면 운전자는 스마트폰으로 신형 마칸과 연결할 수 있다. 새로운 오프로드 프리시전 앱을 사용해 오프로드 주행 분석 및 기록도 가능하다.

신형 마칸에서는 더욱 확장된 첨단 옵션 사항들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형 마칸에는 새로운 옵션으로 911 모델을 연상시키는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장착할 수 있으며,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선택 시 스티어링 휠에 모드 스위치와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이 적용된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하는 새로운 트래픽 잼 어시스트는 최대 65km/h의 속도로 쾌적하고 편안한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마칸은 차선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다.

센트럴 터보 레이아웃의 신형 V6 엔진

신형 마칸의 구동장치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이제 포르쉐는 신형 마칸 S에 새롭게 개발된 6기통 V 엔진을 도입한다. 신형 마칸 S의 3.0리터 터보차저 엔진은 최고 출력354마력(PS), 최대 토크 49kg.m를 발휘한다. 이는 기존 모델 대비 14마력(PS) 이상 향상된 것이다.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탑재 시 정지 상태에서 100 km/h까지 가속하는데 이전 보다 0.1초 단축된 5.1초이며, 최고 속도는 254 km/h에 이른다.

신형 마칸 S의 6기통 엔진은 하이-테크 구동장치다. 파나마라에 처음으로 장착되었던 이 엔진은 카이엔에 이어 이제 마칸에도 적용된다. 모노 배기 터보차저로 실린더 V 내부, 이른바 센트럴 터보 레이아웃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연소실과 터보차저 사이의 짧아진 배기 가스 경로 덕분에, 즉각적인 응답 성능을 발휘, 역동적인 주행 방식에 적합하다.

트윈 스크롤 기술로 배기 가스는 계속해서 터빈 휠 쪽으로 흐르고, 이로 인해 가스 교환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연료 손실이 상당히 줄어든다. 센트럴 인젝터가 장착된 새로운 연소실 구조 덕분에 혼합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 리터당 출력이 기존 113마력에서 118마력으로 5마력 향상되었지만, 배기 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줄었다. 사이클 당 최대 3회 분사로 연소는 최적화되고, 배기 가스 내의 유해 물질 성분도 감소된다.

포르쉐 마칸 S의 부가세 및 국가별 특별 사양을 포함한 독일 시장 판매 가격은 58,763유로 부터 시작한다.